

자기 개발의 서사와 미적 낭만성

—노자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진영복*

1. 들어가며
2. 자기 확인과 당위의 세계: 1920년대 소설
 - 2-1. 자기 개발과 자기 확인의 서사
 - 2-2. 당위의 낙관성과 미적 낭만성
3. 자기 균열과 존재의 세계: 1930년대 소설
 - 3-1. 자기 개발과 민족적 주체의 서사
 - 3-2. 자기 균열과 존재의 비루함
4. 나오며

국문요약

1920년대 초반 조선 문단은 계몽과 이성에 의해 배제되어 왔던 감각과 육체를 주체 형성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찾고 내면의 개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노자영 역시 1920년대 소설에서 감각, 감정, 정념에 대한 낭만적 접근으로 자기 확인, 즉 개성의 자각에 이르는 길에 천착한다. 청춘의 감각은 개성과 연애를 갈망하고, 낭만적 사랑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연애에 대한 당대 대중의 갈망은 노자영이 문학을 생산하는 토대였고 그것을 확산하게 한 계기였기에, 20년대 그의 소설에는 '완전한 자아', 혹은 '참 자기'를 실현한다는 당위의 낙관성이 충만하다. 이 당위는 미래와 연애에 대한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낙관적 전망으로 낭만적 미의식으로 충만되거나 사랑과 이상 실현의 실패에 따른 원한적인 비극성으로 구조된다.

반면에 1930년대 노자영의 소설은 ‘완전한 자아’, ‘참 자기’ 실현의 기준에 대해서는 괄호를 친 채, 실세계의 다양한 존재와 그들의 ‘자기 균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명사들이 이룬 자기 개발의 성취를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사적 영역에서 보여주는 인격적인 기만이나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

이처럼 노자영은 20년대 소설에서 철저하게 감각의 낭만성과 개성에 대한 계몽적 선언을 관념적으로 결합시켰다면, 30년대 소설에서는 낭만적 미의식이 일상세계의 엄중함과 비루함 속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음을 자연주의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이런 자연주의적 태도는 조롱이나 가치 전복이라는 위반의 정신을 실재적 힘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주제어 : 노자영, 소설, 자기 개발, 자기 확인, 당위, 미적 낭만성, 자기 균열, 존재, 비루함)

1. 들어가며

작가 노자영은 “인생을 언제나 화려하게 살자”¹⁾는 뜻에서 아호를 춘성(春城)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는 “『무화과보다도 더 속이지는 생명』이란 시가 처음 활자화한 나의 글”²⁾이라고 혹은, “대정(大正) 6년(1917년-인용자) 춘(春)에 기독교신보에 『무화과(無花果)같은 생명(生命)』이라는 시를 쓴 것이 나의 글이 활자화한 처음”³⁾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

1) 『작가 작품 년대표』, 『삼천리』, 1937.1, 230쪽.

2) 노자영, 『나의 문단 참회록』, 『신인문학』, 1935.1, 79쪽.

3) 『작가 작품 년대표』, 『삼천리』, 1937.1, 230쪽.

『기독신보』에는 그런 제목의 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화과 열매 갖치 보드러운 싱명이”로 시작되는 1919년 「죽음의 사자」라는 시가 확인될 뿐이다.⁴⁾ 그런데 그는 이보다 앞서 숭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필 「거룩한 날을 당하야 원산 해변에서」, 시 「운작」 등을 발표한 바 있다.⁵⁾

이처럼 노자영은 1910년대 말 『기독신보』와 『매일신보』에 시, 소설, 수필 등을 발표하면서⁶⁾, 문명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20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학생계』, 『서울』, 『신여성』의 편집기자로, 이후 『장미촌』, 『백조』 동인으로,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발표하며 문사로서 명성을 얻는다. 특히 1923년 연애서간집 『사랑의 불꽃』은 “일일(一日) 평균 처서 팔니기를 30부 내지 40부식이나 팔니는 현상을 나타내여서 그야말로 서적 시장에서는 판매수의 최고 기록을”⁷⁾ 세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또한 소설집 『반항』(1923) 역시 공전의 히트작이 되어 그의 대중적 인기는 치솟아 갔다. 이후 시, 소설, 수필 등을 모은 작품집 『영원의 몽상』(1924), 『청춘의 광야』(1924), 『무한애의 금상』(1924) 등과 시집 『처녀의 화환』(1924), 『내 혼이 불탈 때』(1928) 등을 연속적으로 발간한 것을 보아도 20년대 그의 대중적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사랑의 불꽃』의 성공은 노자영이 이제 막 생성되기 시작하는 제도 문단에서 배척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의 발간에 대해, 홍사용은 노자영에게 “예술가”, “문사라는 말을 남용치 말라.” 라고

4) 노자영, 「죽음의 사자」, 『기독신보』, 1919.6.25.

5) 로지영, 「거룩한 날을 당하야 원산 해변에서」, 『기독신보』, 1917.12.19; 노자영, 「운작」, 『기독신보』, 1919.5.14.

6) 노자영은 『매일신보』 현상 시 모집에 「비오는 날」이 1등상을 탄 후 계속 작품을 발표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노자영, 「나의 문단 참회록」, 『신인문학』, 1935.1, 80쪽.

7) 「서적 시장 조사기, 한도(漢圖)·이문(以文)·박문(博文)·영창(永昌) 등(等) 서시(書市)에 나타난」, 『삼천리』, 1935.10, 138쪽.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문사가 쓴 연애편지라고 광고하고 이를 “고급문예”라고 칭하여 대중 서적을 만들어 파는 일은 “창피한 일”이라며 비판한 것이다.⁸⁾ 홍사용은 상업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는 대중 예술과 구별 짓기를 통해 동인지를 중심으로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1920년대 초반에 노자영은 순수 예술의 동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순수 예술을 훼손한 탕아이자 순수 예술의 대타적 존재가 된다.

노자영이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1920년대 초 조선 사회는 근대적 학교 제도가 도입되어 학생과 청년이 배출되던 시기였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근대 사회에서 입신출세의 꿈과 야망을 갖고 근대적 학문을 배우고 유학을 떠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청년들이 등장한다. 과거의 신분사회에서는 자기의 계급적 직분을 지키고 거기에 맞게 검약과 숙명, 인종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의식이였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서 부귀빈천은 천명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일본이나 서양으로의 유학은 서구와 식민지 조선의 시간적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고 입신출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였다. 그러나 자기 개발의 욕망은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을 성취하는 꿈을 꾸게 하는 반면,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적자생존이라는 치열한 경쟁도 감수해야 한다. 실패의 책임은 개인의 인격과 의지의 결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구체화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테크놀로지를 익혀야 하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적 주체 형성은 규율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존재의 미학에 의한 자기 창조에 있다. 이때 주체의 형성과 함양을 필수적으로 만들며 발전을 요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것

8) 홍사용, 『6호 잡기』, 『백조』, 3호, 문화사, 1923.9, 219-220쪽.

이다.⁹⁾ 자기에의 배려는 자유와 자율성, 욕망과 쾌락, 그리고 심미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주체, 즉 자기 창조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체는 자기에의 배려로서 자기 훈련, 욕망과 쾌락의 활용 등의 주체화 양식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를 정립한다. 이러한 주체성을 실천하는 총체인 자아는 행위 규칙을 스스로 고정시키고 심미적 가치와 스타일의 기준에 응답하는 자발적이고 반향적인 실천을 행하게 된다.

1920년대 조선 근대 청년에게 자기에의 배려, 즉 자기 창조의 중요한 모티프는 자기 개발의 욕망이었다.¹⁰⁾ 물론 식민지인의 처지에서 자기 개발의 욕망은 많은 부문에서 제약이 있었고, 따라서 비정치적인 문화 영역과 계몽적 근대화에 거리를 두는 미적 근대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들의 미적 자율성과 내면에 관한 탐색은 근대 청년의 내적 고독으로, 다시 이것은 자기의 내면을 알아주는 이상적인 이해자를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져, 연애를 소망하는 감정이 탄생한다.¹¹⁾ 자아 확장의 요구는 사적 영역이자 내면의 장소인 사랑을 완성하려는 욕망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근대적 개인의 자율성 추구는 연애의 감정에 근거한 일부일처제를 추구하며 등장한다.¹²⁾

노자영은 「새 령혼의 출현」(1919.3.26)을 시작으로 194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표박」(1922), 「반향」(1923), 「청묘」(1934), 「폐인」(1935) 등

9) 미셸 푸코, 이혜숙 역, 『성의 역사 3 : 자기에의 배려』, 나남, 2004, 57쪽.

10) 김동인의 회고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문학청년인 노자영을 비롯한 이상화, 나도향 등의 백조 동인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현재 재학생 혹은 갓 교문을 나온 젊은이들”로 “문학소년 내지 문학청년들을 규합”한 “갓 중학”(김동인, 『문단 30년사』, 『김동인문학전집』 12권, 대중서관, 1983, 283쪽.)을 졸업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의 자기 개발의 욕망이 근대 개성의 감각과 구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11) 木村直恵, 『青年の誕生』, 新曜社, 1998, 250쪽.

12) 하버마스, 이진우 옮김,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1995, 25-29쪽.

20여 편의 적지 않은 소설을 발표한다. 그의 소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가 출간한 다양한 종류의 책은 이광수에 버금갈 정도로 많아 다작의 작가라는 평판을 얻었다.¹³⁾ 그러나 그에 대한 당대 문단의 평가는 냉혹한 편이었다. 한 예로 김을한은 “작품답지도 못한 작품으로 인하여 타락의 정정(寔井)에 빠진 남녀학생이 얼마나 만홀 것이며 구만리 가튼 전도(前途)를 그르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만을 것인가”¹⁴⁾라며 노자영의 작품이 청년 대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비난한다. 한편 김현·김윤식도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에 노춘성이 많이 읽혔다면 실증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치의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¹⁵⁾고 단언할 정도로, 노자영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런 연유로 그의 소설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¹⁶⁾

문화는 자기 정당화를 위해 지식과 재현이 생성되는 곳으로 이해와 해석을 둘러싸고 권력이 대립되는 장이다. 사유, 의미나 가치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 스타일, 감정 구조, 취향이 문화의 권력 다툼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방식은 특정한 물질적 권력체계 안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규율된다. 자기 개발 욕망이나 연애라는 문화 현상도 마

13) 『문단제일록』(『신인문학』, 청조사, 1936. 1)에서 노자영을 당대에 최다 작품을 쓴 작가로 손꼽고 있다.

14) 김을한, 『인생잡기』(4), 『조선일보』, 1926.8.12.

15)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8쪽.

16) 노자영 소설 연구는 시 연구보다 더 미미하다. 김현주, 『한국 대중소설의 전개와 독자의 문제』, 『독서연구』 13호, 2005.6, 23-59쪽; 진영복, 『성(性)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논총』 4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6, 257-289쪽; 진영복, 『1920년대 대중적 글쓰기와 근대적 주체의 자유상: 노자영 소설 (반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413-443쪽; 임정연, 『근대소설의 낭만적 감수성-나도향과 노자영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21-346쪽.

찬가지이다. 이러한 문화화의 의미에서 보면 노자영의 소설이 지닌 독특한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노자영의 작품이 광범위한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다는 사실은 자기 개발의 욕망을 지닌 대중의 감정구조와 소통하고 있었다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글은 노자영의 소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 욕망의 대상과 기제로서, 연애, 미적 낭만성, 성공담 등이 어떻게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감정구조와 소통한 지점을 유추하고자 한다.

2. 자기 확인과 당위의 세계: 1920년대 소설

2-1. 자기 개발과 자기 확인의 서사

1920년대 조선 청년들이 처한 자기 개발의 욕망은 연애를 통해 개성을 확인하는 자기 확인의 서사로 수렴된다. 자기 개발의 욕망은 다양한 내러티브와 인지적 전형(cognitive typification)을 통해 사고 틀에 '퇴적'되어 제도화된다. 어떤 내러티브가 자아 구성에서 기본 도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화제도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¹⁷⁾ 또한 사람들은 무정형의 감정을 특정하게 구조화하여 감정 구조를 만들어 낸다. 감정 구조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감정의 차원에 모종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감정의 장이란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 즉 국가, 학계, 각종 문화산업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창출되는 작용이다. 자기 개발 담론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성취한다는 자기 개발 담론은 감정과 육체를 향유하고 통제하는 주

17) 예바 일루즈, 김경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110, 116쪽.

체에 대한 인식, 즉 어떤 외부적 간섭 없이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근대 주체 의식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아무도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존엄한 개성을 토대로 하여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기 개발의 담론은 감정과 감각, 정념을 하나의 문화로 재현하고 제도화하는 미적인 작업과 연동되는 것이다.

소설 『표박』¹⁸⁾은 자기 개발의 욕망을 사회적 성공이라는 구체적인 꿈과 연결지음으로써, 독자 대중의 성공 욕망과 소통하고 있다. 연인인 순영과 혜순은 유학을 통해 미래의 자기상을 실현하기 위해 3, 4년 헤어지는 고통을 감수한다. 혜순은 동경의 여자 대학을 졸업한 후 여학교 교장이 되려고 음악과 회화에 힘쓰고, 순영은 프랑스 유학 후 대학 교수이자 소설가가 되고자 자기 개발에 매진한다. 이들은 청춘의 감각으로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애를 하는 한편 자기실현의 꿈을 위해 자기를 통제하고 규율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자기 개발을 욕망하는 분야는 식민지인이라는 특수성 탓인지 교육과 예술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개인적 노력에 의해 성취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낙관성은 자기 개발을 향한 경쟁의 과열과 실패의 두려움,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고등유민으로의 전략 가능성 등등의 현실적인 불안 요소를 소거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주인공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을 재조직하고 현재는 미래의 꿈을 위해 유예된다. 이 미래의 시점에 의해 지금 현재의 부정형적 시간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이들의 현재의 연애는 스위트 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미래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된다. 『표박』의 시간성은 육체와 연애

18) 『표박』은 『백조』 창간호(1922.2)와 2호(1922.5)에 연재되었으나, 그 후 백조 동인에서 제명당하면서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의 감각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는 현재의 시간성과 자기 확인 후 자기 실현의 꿈을 위해 현재를 미래로 유예하는 미래의 시간성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성은 학생과 청년이 처한 조건과 일치한다. 또한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미래를 위해 자기 정복과 자기 통제 기제를 스스로에게 작동시킨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감각과 육체의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를 창조하기 위한 자기 확인의 기제와, 미래를 위해 인내하는 자기 통제 기제가 접합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기 개발의 이중적 기제는 미래를 선취하려고 욕망하는 주인공들에게서 발견된다.

『반항』은 감각과 육체의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를 창조하고 개발하려는 주체를 생산하려는 관념이 더욱 파격적으로 드러난다. 이 소설은 총각인 경순과 유부녀인 혜자의 사랑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매음에 불과하다며 혜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자유 이혼의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혜자의 이혼 요구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혼할 자유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유부녀인 혜자가 경순과 관계한 것은 간음이나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조를 밟치는 것은 간음도 아니고 화간도 아니야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야요!”¹⁹⁾라며 혜자는 맞받아친다. 이러한 혜자의 주장은 노자영 자신이 소개한 엘렌 케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²⁰⁾ 혜자는 엘렌 케이와 마찬가지로 자유 이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결혼 생활의 합법성 유무보다는 사랑의 유무가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²¹⁾ 사람들의 자기의 감정구조나 사유는 다양

19) 노자영, 『반항』, 신민공문사, 1923, 67쪽.

20) 노자영, 『여성운동의 제일인자 엘렌 케이』, 『개벽』, 1921.2-3.

21) 가부장적 제도에서 정조관은 양성에게 동등하게 요구된다기보다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엘렌 케이는 자유 이혼론을 주장하며 양성의 충실

한 내러티브 속에서 영향 받고 형성된다. 유부녀인 헤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연인과 관계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하쿠다 바쿠렌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다.²²⁾ 하쿠다 바쿠렌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인 오빠와 신분상승을 원하는 나이 많은 탄광 부자의 정략에 의해 결혼하였지만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자 애인과 잠적하고 신문에 공개적으로 자유 이혼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헤자 역시 결혼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받은 금융가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은 외도를 일삼는 등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런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헤자는 “결혼은 사랑으로야만 성립한다”, “연애로 되지 않은 결혼(사랑과 이해, 정신이 없는 결혼 인용자)은 강간의 결혼이요, 마음의 결혼”이라는 각성에 이른 것이다.

나를 죽이고 나를 굶이고 나를 멸시하여 사랑 업는 남자에게 이해 업는 남자에게 나의 귀한 정조를 바치고 나의 정한 인격을 드리고 나의 전존재를 바친다면,

한 정조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 분업에 토대하여 모성을 강조하는 엘렌 케이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이 없이 현실적으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의 해소를 요구하는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 22) 여류 문사로 활동하던 야나기하라 바쿠렌(柳原白蓮)이 애정 없이 정략 결혼한 남편을 떠나 연인 관계에 있는 기자 나야자키 류노스케와 함께 잠적한 사건이다. 1921년 10월 20일 오사카 아사히신문에서 그들의 실종을 보도하자, 바쿠렌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공개 이혼장을 신문에 싣는다. 이로 인해 둘의 사랑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심지어 흥룡회라는 극우단체에서는 국체를 뒤흔드는 대사건이라며 잠적한 남녀의 본가를 공격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결국 1923년 바쿠렌은 황족에서 제적되고 재산도 몰수당한 후 남편과 이혼하고, 류노스케도 당시 노동운동을 표방하던 '신인회'에서 제명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결혼하여 서로에게 충실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日本近代文學館 編, 『日本近代文學大事典』 第三卷, 講談社, 1978. 400쪽.) 이 사건을 염상섭은 『너희들은 무엇을 어땀느냐』에서 모티프로 차용하기도 한다. 진영복의 『성(性)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론총』 4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6, 257-289쪽 참조.

이것은 자아 모욕이 아니냐?(46)

이처럼 헤자는 처녀성 중심의 여성 정조관이 아니라 이해 있는 사랑과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것이 정조를 지키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조관에 입각할 때 총각인 경순과 유부녀인 헤자의 연애와 결혼이 가능하게 된다. 진정한 결혼 생활은 타자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다른 개성 속에서 스스로의 개성을 녹여 넣는 인격적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애를 통해 주체가 결핍된 욕망을 충족해 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욕망이 주체를 사회적 존재로 자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자영은 연애를 가장 강력한 자기 확인과 자기 개발의 주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이처럼 자기 개발이란 사회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청년이 꿈꾸는 연애, 이상과 관련된다. 이는 구습에 얽매인 조선에 생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제도와 운동을 모색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상 실현이 식민지라는 환경과 조선 사회의 완고성에 의해 실패하자 이를 ‘원한(怨恨, resentment)’의 감정으로 고조시키는 비극적 서사 유형이 1920년대 노자영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등장한다. 정사, 자살, 죽음 충동 같은 정조(情調)가 사회문화적 강제에 맞서는 행위 양상으로 등장하고, 이는 자기의 적극적 창조를 억압하는 외부적 권력에 대한 원한적인 실천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무한애의 금상』은 청춘 남녀가 사랑과 이상 추구의 벽에 부딪히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이다. 태순은 조선서 첫째가는 운 남작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다르게 고학생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평민주의자요 노동주의자이다. 그는 동경 유학 중에 만난 혜정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졸업 후 빈민원과 음악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나, 아버

지 반대에 부딪힌다. 혜정이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윤 남작은 이 둘의 사이를 허락하지 않고, 결국 혜정과 태순은 “끝없는 사랑 속에 살”²³⁾기 위해 자살한다. 혜정과 태순의 어머니는 날마다 자식의 무덤가에 와서 슬퍼하다 같이 자결하고, 윤 남작 역시 시베리아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가 익사체로 발견된다. 이처럼 죽음의 절대성이 이 소설의 서사를 견인하며 연애의 절대성을 지지한다. 연애의 좌절과 원한에서 유발된 죽음은 저항의 수단으로서 특권화 되어 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이러한 ‘원한’의 감정은 ‘노예의 도덕’이다.²⁴⁾ 제국주의와 식민지, 계급 대립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을 긍정적 실존 상황으로 채신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삶의 조건이나 신의 주사위놀이를 “생기 나는 피를 말리우는 영원의 감옥”(85)이라고 원망하며 자신의 생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운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강자의 질서에 힘없이 패배하는 청춘의 이상과 사랑은 원한의 부정적 기분으로 비극적으로 마감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극적 죽음을 위무하기 위해 두 어머니의 죽음과 윤 남작의 죽음을 배치하여 허구적 서사 속에서 ‘원한’의 무력한 승리를 이끌어낸다.

『천사의 무덤 앞에서』에서도 사랑을 잃은 청년의 원한이 드러난다. 1925년 추석 전날 H라는 청년은 경성을 떠난다. 이 청년은 “조선의 흙덩어리를 향기롭게 하리라. 백의인(白衣人)의 눈물을 노래해 주리라”²⁵⁾던 시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애인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고 그의 주머니에 있던 『천사의 무덤 앞에서』라는 유서가 신문에 보도된다.

왜 우리가 이 무정한 세상에 낫드란 말이냐? 그리고 왜 눈물 만코 고통 만흔

23) 노자영, 『무한애의 금상』, 『무한애의 금상』(1924), 청조사, 1928, 9쪽.

24) 질 들뢰즈, 이경신 역, 『니체와 철학』, 민음사, 1998, 259쪽.

25) 노자영, 『천사의 무덤 앞에서』, 『영원의 무정』, 청조사, 1925, 252쪽.

이 조선에 낫드란 말이냐? 우리가 적어도 딴 나라에 나고 자유로운 사회에 낫드
라면 우리 두 사람 새이에야 얼마나 곱고 즐거운 축복의 꽃이 피엿스랴(257)

이 둘의 사랑이 싹튼 지 한 달 만에 P는 사상을 위해 상해로 가고 H는
문학을 위해 동경으로 가며 미래를 약속하고 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P가 상해에서 잡혀 조국으로 압송되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자, H도 슬픔
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다. 이상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자살
로써 자신의 순결함과 영원성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렇듯 1920년대 노자영 소설에 나타난 청년들의 자기 개발 담론은
낙관적인 욕망 충족을 예기하는 결말로 끝나거나 이상과 사랑을 잃고
이것을 방해하는 제도와 세력에 대한 원한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두
층위로 나뉜다. 이 시기 노자영은 자기 개발의 담론을 제한된 영역에서
의 성취를 낙관하거나 좌절된 이상을 원한적 정조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재현하지만, 이 방식 모두 낭만적 감정의 양극단의 수사인 셈이다. 이런
낭만성은 1920년대 근대적 주체를 소망하나 공적 영역으로 확산이 제한
된 당대의 청년 대중의 감정구조가 투사된 것이다.

2-2. 당위의 낙관성과 미적 낭만성

1920년대 노자영 소설에서 자기 개발의 욕망은 연애를 통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 양식들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의 행위자로 자기를 주체
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연애에 기반한 낭만적 사랑
은 근대적 구성물이다.²⁶⁾ 낭만적 사랑은 근대 이전의 열정적 사랑이 지

26)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이 19세기 이래 개인적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데 개입해 왔다고 주장한다.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 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75-88쪽.

닌 제도 외적인 정열을 숭고한 사랑이라는 감정 형태를 근대의 새로운 형식의 사랑과 일부일처제의 가족주의의 틀로 제도화한 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상을 실현하는 자기 개발 담론이자 자기 확인의 서사이다. 크리스테바가 지적했듯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이상적인 사회를 꿈꿀 때에 흔히 사랑을 바탕으로 그런 사회를 세운다고 상상하는 것”²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설 『표박』은 연애 감정에 휩싸이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제기한다. ‘미소년’이자 ‘청년 예술가’인 영순은 “세루 양복을 입고 분홍 와이셔츠에 파란 넥타이를 맨 후 새까만 캡을 쓰고” 다니며 “청춘의 미”²⁸⁾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는 지방의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신문에 작품 투고를 하는 등 문사로서의 꿈을 키우다 신문사 문예부장이 된다.²⁹⁾ 어느 날 청년회관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노래 부르는 혜선을 보고 첫눈에 반한 영순은 “그를 몹시도 그림어 하였다. 번개갓치 그의 영(靈)을 포옹하였다. 그가 나를 사랑하여 주면 하였다.”(1호, 10)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혜선에 대한 강렬한 끌림은 “무한의 그리움과 무한의 설움과 무한의 외로움이 한데 모여 그의 젊은 ‘영’을 뒤흔들고 그의 젊은 ‘생’을 충돌시켰”(2호, 126)다. 이처럼 영순은 자기를 이해하고 내면의 고독을 공유하는 이해자를 만나고자 하는 연애의 열병에 휩싸인다. 여성을 ‘무한미’를 가진 ‘미의 신’으로 여기는데, 감정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하는 예술의 기능과 희열과 황홀의 감성을 선사하는 연애의 감정이 동일시되면서 감정의 낭만성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27) 쥘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사랑의 역사』, 민음사, 2008, 14쪽.

28) 노자영, 『표박』, 『백조』 창간호, 1922.2, 문화사, 7쪽.

29) 이는 신문사 투고라는 제도를 통해 문학청년이 문사로 성장한 노자영의 개인사와 유사하다.

『반항』은 자기 개발을 향한 관념과 행동을 파격적으로 추구하면서 섹슈얼리티도 과감하게 드러낸다. 경순은 “불덩어리가 되었던 몸은 아직도 식지 아니하였다. 그리하고 그의 온 몸에는 어나 곳을 물론하고 헤자가 숨어 있지 안은 곳이 었는 듯하였다.”³⁰⁾라며, “두 사람의 육체를 한데 녹여내고, 두 사람의 영을 한데 영키게 하였을 뿐이다. 입살과 입살은, 서로 마조치고, 가삼과 가삼은, 한데 합하게 되”(21)는 육체의 쾌락과 감각의 매혹을 느낀다. 헤자와 경순의 육체의 향유가 긍정되는 것은 이들이 영육일치의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영육일치의 연애는 사랑을 통해 분리되고 유한한 개인이 혼자로서는 충족되지 않는 것을 타자와 합일함으로써 영속적인 안정성과 완성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헤자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헤자에게 그녀의 부정을 문제 삼고, “이년! 네가 죽기 전에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걸”이라고 폭언하고 폭력을 가한다. 폭력을 당한 헤자는 남편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후 애인 경순과 함께 프랑스 니스로 도망친다. 이 둘이 “니스라는 도시에 조그마한 이층집을 짓고 파란 지중해의 물결과 어여쁜 감람나무 그늘을 벗으로 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자미 있는 생활”(76쪽)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헤자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어 비극적으로 끝나야 할 소설 결말이 악을 징벌하여 평온을 찾는 멜로드라마 구조로 제시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자기 개성과 사랑을 억압하는 결혼 생활은 악이고, 진정한 자아에 기초한 자기 개발은 절대 선이라는 미적 낭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낙관적인 당위성에 기초한 것이다.

30) 노자영, 『반항』, 신민공론사, 1923, 3쪽. 노자영의 『반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1920년대 대중적 글쓰기와 근대적 주체의 자유상(象)-노자영 소설 『반항』을 중심으로』 참고 바람.

또한 충족된 세계로서의 서구와 결핍된 세계로서의 조선을 대비하여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개성의 자율성’ 유무에서 찾음으로써, 개성을 중요한 정치적 장치로 제시한다. 이러한 결말 구조는 현실의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독자 대중에게 연애와 개성의 추구가 당위이며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낭만적 이상으로 인식하게 한다.³¹⁾

더욱이 『꽃 피는 처녀』(1924년)에서는 사랑을 만물의 근원으로 승화시킨다. 명선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정(淨)한 사람입니다. 종교도 사랑에서 그 엄이 돌아 낫스며 모든 예술과 모든 철학도 사랑의 힘에서 그 입이 자라 난 것이외다.”³²⁾ 라고 주장한다. 이성의 사랑이 “가장 두텁고 뜨거운 것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노자영의 1920년대 소설은 자기 개발의 감각, 감정, 정념이 서사의 풍부함을 통해 보편적 정신의 세계로까지 고양되지 못하고 감각과 감정의 구체성은 과감하고 밀도 있게 재현되면서도 연애와 개성 추구의 정당성이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제시되는 불균형을 보여준다. 20년대 노자영 소설의 서사 구조는 개성과 육체에 관한 계몽적 담화를 제시하고, 이어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장면 묘사가 결합되는 단순함을 보인다. 이 소설에서도 자유연애의 본질을 공명한 후에 두 남녀의 관능과 육체의 향연이 뒤따른다. “두 사람의 숨소리 하나이 되어 나실나실 창 새로 퍼져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잇다금

31) 현실과 인생에 대한 치밀한 분석 대신에 낙관적 결말 구조를 통해 대중들의 욕망을 대리 만족시키는 서사 구조는 『불멸의 진리』(1924)에서도 재현된다. 목사의 딸인 경신은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자와의 강제적인 결혼을 피해 사랑하는 사람과 북행 열차를 타고 홍콩으로 탈출한다. 소설의 결말은 8년 후 영순과 경신은 당당한 음악가, 문학가로 성공하여 조선의 자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개성을 찾고 자유연애에 기반한 결혼과 유학이 자기 개발의 성공을 약속하는 핵심적 요소로 제시된다.

32) 노자영, 『꽃 피는 처녀』, 『무한애의 금상』(1924), 청조사, 1928, 178쪽.

정열에 타는 급한 숨소리도 들리고 있었다.”(187) 라고 관능적 감각을 자극하는 육체의 결합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처럼 1920년대 노자영 소설은 연애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왜 당위이고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담론을 핏진하게 그려가기보다는 ‘첫눈’에 반한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매혹되는 과정과 그 감각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반향』을 제외하고는 남성 화자가 개성과 자유에 대한 계몽적 담론을 발화하고 여성은 이 담화에 공감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남녀의 위계적 관계를 고착화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게다가 연애와 개성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이 자기 성찰, 허위, 분열, 부정 등의 위기를 겪으며 생성되는 다성적인 목소리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는 낭만성과 함께 진리를 단일한 것으로 상정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손쉽게 선악의 틀 속에 대입하는 계몽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런 계몽의 방식으로 인해 ‘자기 안의 타자’를 듣는 다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선언적인 외침과 같은 당위성의 단일한 목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다.

그러나 노자영의 1920년대 소설에서 재현되는 주체의 자기 각성, 참자아, 참 인생을 추구하며 자신을 정립하는 내러티브는 감각과 육체, 미적 자율성에 눈뜨고 이러한 것을 자기 내면과 생활 세계 속에서 탐색하는 과정이자 근대적 주체로서의 삶을 구성하려는 대중들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다. 연애를 통해 근대 주체로서 자기를 확인한 주인공들처럼 대중 역시 사적 개인의 자유를 찾고 내면의 개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대했을 것이다. 그동안 계몽과 이성에 의해 배제되어 왔던 연애 과정에서의 감각과 육체의 섹슈얼리티는 자기 창조와 주체 형성의 필수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한편, 자아에 대한 권력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고자 한다. 즉 자기 변형과 자기 창조를 요구하는 힘에 의해

적극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아의 욕망과 자유, 쾌락 등 육체를 주체화하려고 욕망한다. 주체는 다양한 구속들 속에서도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 양식들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의 행위자이자, 자유의지로 자기 개발의 목표를 소망하고 이를 성취하려는 존재이다. 20년대 노자영 소설에는 이러한 당대 학생과 청년들이 특히 공감하는 정념이 녹아 있다. 1920년대 노자영 소설은 “한동안 남녀학생의 책상 위에 그의 작품이 업는 곳이 거의 업슬 만큼 인기를 끌”³³⁾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남녀학생 중에 옥편(玉篇)은 한 권 없을망정 노자영 군의 작품 한 권식은 거의 다 있다”³⁴⁾고 할 정도로 그의 소설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삶을 구성하려는 학생과 청년들의 욕망과 교호하였다.

3. 자기 균열과 존재의 세계: 1930년대 소설

3-1. 자기 개발과 민족적 주체의 서사

20년대 초반 선풍적이었던 노자영의 인기는 20년대 중반부터 소설의 내적 한계와 문단 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급격히 쇠락한다. 특히 계급문학이 주도권을 잡는 시기, 즉 “대정 14년도(1925년-인용자)를 잡아들면 서부터는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조의 격변과 외래사조의 격랑으로 반도 사상계에도 일대 췌세이순과 파문을 이르고 잇섯든 관계로 이 해에 와서는 급작이 춘성의 제 작품은 급격의 몰락을 당하”³⁵⁾게 된다. 계급문

33) 다정생, 『요새이 생각나는 사람』, 『별진곤』, 1929.12.1, 70쪽.

34) 김을한, 『인생잡기』(4), 『조선일보』, 1926.8.12.

35) 20년대 후반부터 연애 이야기보다는 “춘원의 『단종애사』, 『이순신』, 『마의태자』 등의 역사소설류 등이 잘 팔리게 되었”다고 한다. 『서적 시장 조사기, 한도(漢圖)·이

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성과 육체적 관능 옹호, 낙관적인 자기 개발 서사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자영의 소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편승한 것이고, 연애의 감각만을 자극하여 청년들을 개인주의적 문제에 매몰하게 하는 불건전한 것이었다. 그는 대중의 영혼과 사상을 타락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한편, “매(賣)O문학자 노자영 군”³⁶⁾으로 불리기도 하는 상황에 표절 작가라는 딱지까지 덧씌여진다. 이러한 문단 내외적 상황을 피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만, 그곳에서 폐병에 걸려 한동안 문단 활동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카프가 해산하는 등 문단 상황이 변화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노자영은 34년 『신인문학』을 창간하고, 『조광』, 『여성』, 『소년』 등의 편집자로 일하면서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한다.³⁷⁾

당대 대중들의 각광을 받았던 『인생특급』과 『아름다운 몽상자』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자기 개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선일보』에 연재된(1937.10.5-12.9) 『인생특급』³⁸⁾은 제목이 상징하듯이 자기 개발 실현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과 속도를 재현한다. 오영준 박사는 어려서 중국에 건너서 중학을 다니고 어떤 불란서 사람의 후원으로 파리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이태리로 가서 성악을 전공한 후 전 구라파에 이름을 날리고 금의환향한다. M신문사 주최로 열린 음악회에서 오영준의 공연은 “오늘 밤의 이 음악회가 조선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꾸미는 커다란 호화판”³⁹⁾으로 소개되고, 오 박사는 조선이라는 대주체의

문(以文)·박문·영창(永昌) 등 서시(書市)에 나타난, 『삼천리』, 1935.10, 138쪽.

36) 『경성명물남녀(京城名物男女) 신춘지상대회(新春誌上大會)』, 『별건곤』, 1927.2.1, 109쪽.

37) 그는 문단 복귀 후에는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독자의 쓴 소리도 듣게 된다. 오만수, 『독자로부터 작자에게, 노자영씨에게』, 『조선중앙일보』, 1934.8.14.

38) 노자영은 『인생특급』이 원래는 “중편으로 쓰려던 것이 장편으로 되”었다고 밝히며, 1937년 12월 9일에 ‘전편 중(前篇 終)’하고 후편을 기약한다. 그러나 후편이 이어지지 않아, 주인공의 자기 개발 후 변전 과정을 알 수가 없다.

39) 노자영, 『인생특급』, 『조선일보』, 1937.10.16.

자랑이 된다. 문학가 임순철 역시 노벨상을 목표로 온갖 정력을 다하여 『백두산』이란 소설로 미국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일약 대문호가 되고 부를 걸머지게 된다.

오영준이나 임순철이 예술적 성공을 거두었다면, 민영식과 최성춘은 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민영식은 게이오 의숙 ‘이재과’를 졸업하고 조선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벌기로 작정하고 금광 사업에 투신하여 성공한다. 한편 최성춘은 “너는 내가 죽은 후에두 무삼 일을 하든지 돈, 돈 좀 버려서 남들처럼 제법 살림을 하며 살도록 해라!”(11.12) 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장사를 시작하지만 일본 대자본에 밀려 망하고 만다. 그러나 “문화 사업이니 쥐뿔이니 할 것 업시 무슨 지탈을 해서라도 돈을 모는 것이 제일”(11.14)이라는 신조로 양복점과 인쇄회사를 차리고 탁월한 영업 수완을 발휘하여 재기에 성공한다. 최성춘은 안국동 네거리에 조선에 최초로 십 층짜리 백화점을 짓고, 옥상에 수영장과 스케이트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고급 식당을 갖춘 조선 최대의 소비공간으로 만든다. 그의 성공은 “경성에 온 지 십오 년 동안에 이렇게 빛난 성공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실로 특급 열차에 지지 않는 스피드였”고,(11.14) 그의 ‘성공 미담’은 영화로 제작되어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된다. 식민지적 상황에서 일본 대자본의 틈새에서 성공하고 민족 자본의 가능성을 보여 주어 조선 민족이라는 대주체를 성공 미담과 함께 상상하게 한다.

『아름다운 몽상자』에서도 자기 개발의 실현이 주요한 모티프이다. 주인공 박영필은 일생 동안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신조로 살아간다. 이러한 신조대로, 영필은 영문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한편 영문 소설을 창작하여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

조선 사람으로 위대한 정치가가 된다든가 세계적 군락가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된다든가 위대한 발명가가 된다든가 또는 세계적 학자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박영필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계적 대작품 노벨상을 상대로 하는 위대한 작품·이것을 자기가 쓰지 말라는 법도 없고 쓰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하였다.⁴⁰⁾

조선인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여 조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식민지 조선에 해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영필은 영국작가협회의 초청을 받아 새로운 사랑인 민부희와 조선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유럽으로 출발한다.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면서 미래로 뻗어 있다는 발전론적 시간관에 기초하여, 매 순간순간을 진보를 향해 자기 연마에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자기 개발 서사가 완성된다.

이와 같이 30년대 자기 개발의 서사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무명시절을 거쳐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시간에 따라 펼쳐지는, 일련의 축적된 성과들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구축한다는 성공 미담 서사는 선적인 시간관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시간관은 자아는 스스로 변신하고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세계관과, 자아란 자아실현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또 개척해야 하는 자기 개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확고한 주체의식을 발생시키고, 자수성가하여 훌륭한 능력과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내러티브는 사회적 성공을 욕망하는 당대 대중들의 욕망 구조와 부합한다. 의지력과 도덕적 기백을 가지고 미덕을 행하면 계급상승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기 개발의 에토스는 다분히 대중적이며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이다.⁴¹⁾ 30년대는 식민

40) 노자영, 『아름다운 몽상자』, 『신세기』, 1939.11, 112쪽.

41)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110, 85쪽.

지라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대중의 인정과 주목, 선망과 시기를 받는 조선의 명사라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즉, 문학, 예술, 교육, 언론 등의 문화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실업인이 등장한다. 이들의 성공은 식민지 조선 독자 대중에게 조선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를 환기시킴으로써 사회적 성공을 대리 충족시키는 한편 식민지 조선 대중의 민족적 감수성을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3-2. 자기 균열과 존재의 비루함

1930년대 노자영은 자기 개발의 서사와 더불어 그 이면의 비루한 존재의 세계를 동시에 재현함으로써, 인물의 자기 균열을 드러낸다. 즉 사회적 성취와 인격의 완성을 분리시켜, ‘자기’ 안에 허위와 기만 등 자기 균열이 자리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명사의 자기 개발의 서사를 통해 독자 대중의 선망과 동일시의 감정만을 끌어내지 않는다. 사회적 명사들의 사회적 성공 이면에 숨어 있는 사적 영역에서의 기만, 허위, 속물근성 등을 드러내어,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지배질서로 편입된 사회적 명사들의 성공에 대한 동일시의 욕망과 그것의 권위와 가치를 전복시키려는 욕망을 동시에 유발시켜, 독자 대중이 지닌 사회적 명사를 향한 이중적 감정을 대리 만족시킨다. 이때 사랑과 결혼이라는 그들의 사적 영역은 자기 균열을 드러내는 지점이 된다. 이 지점에서 명사의 비루함과 “괴스러움”⁴²⁾이 폭

42) 바흐찐은 “카니발이 벌어질 때면 일상적인 생활의 질서와 체계를 규정짓는 구속, 금기, 법칙들이 제거되고, 사회적·계급적 관계에 대치되는 새로운 상호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때 “괴스러움”이 인간 본성의 은폐된 면으로서 노출되고 표현됨으로써, 지배문화와 그 이데올로기를 위반하고 전복한다고 한다. 이 위반의 정신이 그

로된다.

30년대 노자영 소설은 ‘첫 눈’에 반해 자기 고독의 이해자인 타자와 결합하여 영육일치의 영원한 사랑을 지속한다는 20년대의 당위가 존재의 세계에서 패배하고 마는 사실을 냉엄하게 그려낸다. 영혼을 상실하고 육체적 탐닉을 일삼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강한 의지와 성숙한 인격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당위(Sollen)로서의 사랑은 퇴색되어 버린다. 이는 노자영이 20년대 소설에서 연애의 가치에 대한 담론을 통해, 미적 낭만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절대적 신념이자 영원한 이상인 당위의 세계로 재현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러한 양상은 30년대 문단 복귀 후 첫 소설 작품인 『청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공적 영역의 발화와 사적 영역의 실천이 상반되는 사회적 명사들의 허위성을 드러낸다. R형사는 생계형 줌도둑을 잡는 것보다는 조선 사회에 첫손가락에 꼽히는 명사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 즉 “xx신문사 x사장도 여학생 첩이 셋이 있고, xx변호사도 도박 상습 범이오 남의 색시를 밥 먹듯이 후리는 놈”이고, “P양도 조선 여성이니 이상이니 하고 당장에 큰일을 해 놀 듯이 굴지만은 그 물건도 모다 한 무리”⁴³⁾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폭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R형사가 주목하고 있는 P교장은 청년회관에서 열린 ‘여성과 정조’라는 주제로 “정조는 여자의 생명이다. 고결한 여성은 정조를 지킴에 있다.”(120)는 취지의 연설을 한다는 사실에 냉소를 금치 못한다. R형사는 P교장을 며칠 동안 미행하여, 그녀의 성공 이면의 비루함을 알고 있

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역사적 힘으로 추동될 때, 기존의 체계나 권위를 박탈하고 소멸시키고 다시 갱생시키는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M. 바흐진, 김근식 역, 『도스 토예프스끼 시학』, 정음사, 1988, 181쪽.

43) 노자영, 『청묘』, 『신인문학』, 1934.7, 116쪽.

기 때문이다. 즉 지난 봄 미국에서 돌아와 xx전문학교 교수로 있는 임유선과 내연 관계에 있으며, 박 변호사와도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또한 과거에 시인 H의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H가 갑작스럽게 죽자 서슴지 않고 낙태를 한 적도 있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교장은 미국 유학파이고 학교 교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자신을 훼손되지 않은 순수성과 영원성을 지닌 처녀로 이미지화하고, “처녀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P교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남녀동등권을 전제로 한 자유연애의 가치를 부정하고 남성 중심적 제도에 충실히 순응하여 여성의 가치를 예속화 시키는 표리부동한 논리를 전개한다. 이처럼 공적 영역의 성공과 사적 영역의 실천이 괴리된 P교장을 통해, 『청묘』는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의 권위를 희화화하고 그들의 일상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괴스러움’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사들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내어 그들을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탈권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고상하고 정신적이며 이상적인 초월의 세계를 웃음을 통해 조롱하고 풍자하여, 대화적으로 탈중심화하고 해체할 수 있는 위반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주의적인 태도로 명사들의 모순적 행위를 파편적으로 드러낼 뿐, 지배문화나 공식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역사적 힘으로 추동하지는 못한다.

『흑건보』에서도 개를 화자로 내세워 명사의 이중생활을 ‘괴스러움’으로 폭로한다. ‘나’의 주인은 신앙심 깊은 목사로 자처하지만, 만여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목표로 무남독녀 외딸과 결혼하여 순탄하게 목사 공부를 마치고 미국도 다녀온다. 그러나 껌썰은 전도부인을 상대로 외입을 일삼는 파렴치한이다. 어느 날 목사는 심방을 핑계로 삼청동 산속에서 박 전도부인과 밀회를 즐긴다. ‘나’가 이들의 외도 장면을 보고

짓어대는 통에 사람들이 모이자 두 사람은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찬가를 부르며 “하느님 우리의 맘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산상 기도를 들으시고 중생하는 몸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 줍소서”⁴⁴⁾라고 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는 우스꽝스런 행동을 한다. 개를 통해 이들의 이중성과 ‘괴스러움’을 조소하고 풍자함으로써, 개/인간, 성/속, 영/육의 경계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개의 시선이 인간의 언어로 변환·확산되지 못하고, 소리의 반향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까닭으로 희극적이고 반어적으로 명사들의 부도덕성을 조롱하고 고발하지만, 사회적 질서를 전복하는 힘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명사들의 부도덕하고 괴스러운 행위가 영/육의 분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노자영은 『아름다운 몽상자』에서 재현한다. 교수이자 소설가인 박영필 옆에는 “가장 충실한 비서인 동시에 연인동지와도 같”은 A양이 있었다. A양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은 영필의 아내가 되려는 야심보다는 다만 그와 함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영필이 동양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타게 되면 결혼도 하고 같이 유럽을 여행할 꿈을 키워 나간다. 그러나 농촌풍경 조사 차 석왕사로 간 영필은 부호의 외딸로서 동경 음악학교를 졸업한 민부희를 만나고, 부희는 자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무기로 영필의 혼과 마음을 정복한다. 영필은 이성으로는 A양을 배반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육체로는 부희의 관능적 매력에 “마음과 혼을 빼앗”(120)긴다. A양과 조심스럽게 연애를 발전시키고 그녀를 미래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던 영필은 부희의 아름다운 육체의 시위에 굴복하여 A양을 배신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필과 부희의 연애나 결혼이 육체적이며 사회적 계약 관계라는 점이다.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지닌 자들의 타락 앞에

44) 노자영, 『흑견보』, 『신세기』, 1940.3, 78쪽.

서 이성과 감정이 합일하는 영육일치라는 연애의 당위성은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만다.

『인생특급』 역시 연애와 결혼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명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계적 음악가로 성공한 오영준 박사는 부호의 딸이자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한 민영순 양과 약혼하지만 그에게는 사루나라는 애인이 있었다. “한때 로마에서 그와 단꿈을 꾸었고 또는 그가 피아노를 잘 치는 까닭에 반주자로 그와 함께 구미를 순회하며 자미를 보았지마는”, “얼굴이 밍게 생기지는 않았으나 그리 미인은 아니며 더욱이 몸이 뚱뚱하”고, “사루나는 자기와 가티 돈이 엮는 가난한 집 딸”이며, “외국 여자를 다리고 고국에 도라온다면 자기의 인기도 떠러질 거 같아서 단연히 그와는 인연을 끈흐려는 심사에서 그를 이태리로 보”(11.19) 낸다. 이처럼 오 박사는 예술적 성취와 사회적 명성을 획득하였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애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는 속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약혼자에게는 “참사랑은 타산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과 정열과 생명을 다한 것이라야 참사랑이죠.”(11.11)라고 달콤한 말을 하는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오 박사에게는 예술의 성취와 인격적 완성이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그에게는 영육일치의 연애의 가치관도 무의미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과 안주에 급급한 비루한 ‘자야’가 사회적 명성과 부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한 오 박사의 위선을 알게 된 민영순은 “천재 음악가고 귀뿔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에 더러워! 에티!”(12.8)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오 박사와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임순철 역시 오 박사처럼 서양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문학자이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연유는 아내를 두고 류경순이라는 처녀와 연애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학생들 앞에서는 참된 생활을 훈화하는 교사였지만 그는 “안해와 자식까지 잇는 몸으

로” “남의 딸을 다리고 이러케 노닥거리면서도 별로 량심의 가책을 받지”(11.23) 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이다. 사실 그는 중학을 겨우 마치고 동경에서 고학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아내 영희의 도움으로 대학 공부를 하고, 조선에서 작가로 입지를 굳힌 것이다. 이러한 그였지만 아내와의 충실한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고, 영육일치 사랑의 영원성을 깨트리고 만 것이다. 그 일로 미국에 건너간 순철이 오히려 문학가로서 대성을 해서 금의환향한다는 성공 서사는 아이러니한 인간 세계의 비루함을 드러낸다.

이처럼 1930년대 노자영 소설은 민족의 자랑으로 칭송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예술가, 실업가, 교육가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을 사적 영역에서는 비루한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재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성공은 자기 개발의 의지에 따른 긍정적 결과라면, 존재의 비루함은 그것이 야기한 부정적 결과로 그려진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를 조명할 때는 연애나 결혼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비루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탄식의 문』을 보면, 주인공 박철은 문학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문사로 “얼마 전까지두 사람은 웨 사느냐! 사람은 좀 더 값있게 살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크게 짓거렸고 또는 일생 동안 문학을 위하여 희생하겠다구 큰 소리를”⁴⁵⁾ 치는 자기 개발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문학 연구, 여행, 문학 잡지 발간 등으로 탕진해 버리고도, 서른여덟이 되도록 좋은 작품 하나 창작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아름다운 희망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듯”(167)한 적막함을 느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노력이나 자산의 부족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혜안의 부재 때문이다. 이를 소설 도입부에서 쓰르라미 소

45) 노자영, 『탄식의 문』, 『신인문학』, 1936.10, 168쪽.

리가 시끄럽다고 그것을 잡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려다 처에게 구박당하는 일화로 압축하고 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친구 오현태에게 취직 알선을 부탁하지만 냉대만 당한다. 직접 신문사 사장을 찾아가 취직을 부탁할 용기를 가져보지만, 사장을 만나기는커녕 문지기에게 폭행까지 당한다. 이러한 경제적 비루함은 ‘참 자기’를 구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실존적 조건이 된다.

존재의 비루함을 폭로하는 방식은 사회적 성공과 인격적 완성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 노자영은 『인생특급』에서 민영식을 통해 그 가능성을 드러낸다. 민영식은 조선 민중에게 밥을 먼저 먹여야겠다고 다짐하고 실업계에 투신한 인물이지만, 사회적 성공 이후 초심을 잊고 첩을 셋이나 얻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의 부도덕한 생활에 절망한 아내가 음독자살한 이후에야, 민영식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조선 사람을 위해 내놓는다. 민영식을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근대적 주체로서 자기를 구성하려는 인물로 그려내지만, 그의 자기 개발의 서사는 화려하고 방탕한 소비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 속에 묻히고 만다.

이처럼 1930년대 노자영의 소설에서 자기 개발과 그 성공은 식민지 조선 독자 대중에게 조선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를 환기시킴으로써 사회적 성공을 대리 충족시키는 한편 식민지 조선 대중의 민족적 감수성을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허위와 기만 등 자기 균열이 자리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사회적 명사의 성공과 그들의 비루함이 공존하는 서사는 선망과 동일시, 조롱과 풍자라는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야기한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완전한 자아’, 혹은 ‘참 자기’를 구성하거나 민족적 주체로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힘을 유발하지 못한다. 다만 자연주의적 태도로 성공담과 비

루한 일상을 파편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사회적 명사와 그들이 틈입해 들어간 지배질서의 권위와 가치를 흔들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대 대중의 감정구조, 즉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의 복원 소망과 사회적 성공에의 제한에서 오는 당연히 느꼈을 패배감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노자영은 1920년대 소설에서 연애를 낭만적 미의식과 동일시하고 종교의 차원으로까지 초월적으로 숭배한다. 그러나 30년대 소설에서 연애는 일상세계의 엄중함과 비루함 속에서 파묻혀 버리고, 낭만적 미의식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4. 나오며

1920년대 초반 조선 문단은 계몽과 이성에 의해 배제되어 왔던 감각과 육체를 주체 형성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다. 연애와 관련된 감각, 감정, 육체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자아의 감정과 정념을 하나의 문화로서 구성하여 확대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찾고 내면의 개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낭만적 사랑은 자아를 찾고 가족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는 기본적 토대가 되어 근대성을 성취하는 중요한 계기로 부상한다.

노자영은 1920년대 소설에서 감각, 감정, 정념에 대한 낭만적 접근 방식으로 자기 확인, 즉 개성의 자각에 이르는 길에 천착하였다. 청춘의 감각은 주체의 욕망을 감각하고 인정함으로써 개성과 자신을 알아주는 이해자를 찾는 연애를 갈망하였고, 낭만적 사랑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였다. 감각과 가정에 대한 미적 낭만성은 식민지라는 조건과 맞물려 자기 개발의 꿈을 교육과 예술 분야로 한정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연애에 대한 당대 대중의 갈망은 노자영이 문학을 생산하는 토대였고 그것을 확산하게 한 계기였기에, 20년대 그의 소설에는 '완전한 자아', 혹은 '참 자기'를 실현한다는 당위의 낙관성이 충만하다. 이 당위는 미래와 연애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낭만적 미의식으로 충만되거나 사랑과 이상 실현의 실패에 따른 원한적인 비극성으로 구조된다.

이에 비해 1930년대 노자영의 소설은 '완전한 자아', '참 자기' 실현의 기준에 대해서는 괄호를 친 채, 다만 실세계의 다양한 존재와 그들의 사회적 성공을 민족적 주체로 환기하거나 '자기 균열'에 초점을 맞춘다. 식민지 조선에서 자기 개발의 의지를 갖고 공적 영역에서 성공한 명사들의 삶을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 수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자연주의적 태도로 조명함으로써 사적 영역에서 보여주는 인격적인 기만이나 속물근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공적 영역에서 보여준 그들의 성취는 조선 민족의 자랑으로 치환되어 독자 대중에게 상상적 공동체의 자기 인정의 욕구를 낭만적으로 대리 충족시키기도 하는 한편, 사회적 명사들의 비루한 사적 영역과 존재의 분열적 양상도 동시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이 틈입해 들어간 당대의 지배 질서의 권위를 조롱한다.

이와 같이 노자영이 20년대 소설에서 철저하게 감각의 낭만성과 개성에 대한 계몽적 선언을 관념적으로 결합시켰다면, 30년대 소설에서는 낭만적 미의식이 일상세계의 엄중함과 비루함 속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음을 자연주의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이런 자연주의적 태도는 조롱과 풍자가 지닌 위반의 정신을 실재적 힘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낳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반항』, 『청춘의 광야』, 『무한애의 금상』, 『영원의 무정』, 『표박의 비탄』, 『인생안내』, 그 외 노자영의 1920- 30년대 신문·잡지 수록 소설.

2. 국내외 논저

권보드래, 『작품연보』, 『사랑의 불꽃 반항(외)』, 범우, 2009.

김현주, 『한국 대중소설의 전개와 독자의 문제』, 『독서연구』 13호, 2005.6, 23-59쪽.

임정연, 『근대소설의 낭만적 감수성-나도향과 노자영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21-346쪽.

진영복, 『1920년대 대중적 글쓰기와 근대적 주체의 자유상 : 노자영 소설 〈반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413-443쪽.

진영복, 『성(性)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론총』 4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6, 257-289쪽.

木村直惠, 『青年の誕生』, 新曜社, 1998.

미셸 푸코, 이해숙 역, 『성의 역사 3 : 자기에의 배려』, 나남, 2004.

M. 바흐핀,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 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110.

질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사랑의 역사』, 민음사, 2008.

질 들뢰즈, 이경신 역, 『니체와 철학』, 민음사, 1998.

하버마스, 이진우 옮김,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Self-development and the Aesthetic romanticism
-concentrating on No, Ja-young's Novels

Chin, Young-Bok(Yonsei University)

Sense and body was understood as an important and necessary element for forming a subject at the Joseon literary world in the early 1920's, which was denied by the enlightenment and reason. With this, they tried to find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give a high value to inner personality.

Also No, Ja-young persuaded the way for self-affirmation, which is aware of personality, as romantic approaching to sense, emotion and passions at the novel in the 1920'. The sense of youth yearned dating which is an appreciator of personality and unknown, and had desire to have a family through romantic love.

The public's longing for dating of the day was a foundation which No, Ja-young generates literature, and an opportunity to spread it, so there are full of optimism of appropriateness at his novel in 1920's, which realizes 'complete self' or 'real-self'. This appropriateness can be met with romantic aesthetic sense as an optimistic prospect for future and dating or made with a tragic grudge following failure of realization of love and his idea.

On the other hand, at No ja young's novel in 1930', he took the focus on various existences in the real world and their 'self-crack', while putting 'complete self' and 'real-self' in brackets. Therefore, while his novels was reproduced the achievement of self-development that a society personage of the colonized Joseon period obtained and appeared their personal deception or snobbery in the private field at the same time, which it had both such attitude like that.

Like that, while No, Ja-young combined ideologically the enlightened declaration for romance of sense and personality into the novel of 20's, at one of 30', it was disclosing in naturalism that romantic aesthetic sense was failing completely in closeness and pitiableness of the daily life world. Such attitude in naturalism has a limitation that can't change the violating mind which is mockery and overturned

value, to the real power.

(Key Words : No, Ja-young, Novels, Self-development, Self-affirmation, appropriateness, Aesthetic romanticism, self-crack, existence, pitiableness)

학술대회 발표일: 2012년 11월 3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